

#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반대”

행정협의회 화순서 임시총회  
‘통합 시도 중단’ 결의문 채택  
법안 폐기 서명운동 나서기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이 국회에 재상정되자 전국 폐광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18일 화순군청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광업공단 통합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폐광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 42만 주민을 대표해 한국광업공단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며 “지난 2018년 발의됐다가 폐광지역의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재발의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협의회는 이어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기관인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시도가 통탄스럽다”며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 사수와 법안 부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그동안 폐광지역 7개 시·군, 사회단체, 주민들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할 경우 ‘또 다른 부실 공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해 왔다.

광해관리공단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시름에 빠진 탄광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폐광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 도곡은천지구 추진하는 직업체험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반면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지난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부실 공기업이다. 부채가 6조4000억(2019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지난 18일 화순군청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광업공단 통합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순군 제공〉

자원공사가 통합되면 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 재원을 전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행정협의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일방적으로 폐광지역 42만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통합 시도

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과 폐기, 폐광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는 구 군수를 비롯해 류태

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김기철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등이 참석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배수펌프장이 장성·황룡 시가지 침수 막았다

31년 전 황룡면 월평리에 설치  
폭우때 전면 가동 29만t 배수



지난 8일 새벽 3시부터 16시간 동안 장성배수펌프장의 전면 가동으로 장성읍과 황룡면 시가지 침수피해를 막았다.

〈장성군 제공〉

장성 황룡면에 설치된 장성배수펌프장이 장성읍과 황룡면 시가지의 침수피해를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년 전 수해 경험을 바탕으로 장성군이 적극적인 물관리에 나서 최근 폭우 때 침수 피해 규모를 줄였다는 평가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새벽 3시부터 16시간 동안 장성배수펌프장을 전면 가동해 장성읍과 황룡면 시가지에 쏟아지는 빗물 29만t을 황룡강으로 흘려보냈다.

장성에서는 하루 전인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40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특히 8일에는 장성호에서 초당 400~500t의 물을 방류한 상황이어서 장성배수펌프장의 인공배수 작업이 없었다면 장성읍과 황룡면 시가지 및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었다고 장성군은 설명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장성군도 318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배수펌프장이 물을 빼낸 지역에서는 침수가 나지 않았다.

장성군 관계자는 “8일 하루 동안 29만t의 물을 방류해 시가지와 농경지의 침수를 막았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1989년 수해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황룡면 월평리에 배수펌프장을 조성했다. 38억원을 투입한 배수펌프장은 우수 용량

8100㎥ 규모로 시간당 1만9440t의 물을 뺐아들일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철저한 재난 대비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함평군, 화훼농가 돕기 포장박스 무상 지원

이달까지 8곳 1만6000매 전달

함평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농가들을 돕기

위해 포장박스를 무상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함평군은 코로나19 여파로 화훼소비자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지역 화훼

농가 8곳에 총 1만6000매의 포장박스를 지원했다.

보조사업비로 진행된 이번 포장박스 지원에는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화물트럭을 이용해 직접 화훼용 포장박스를 농가에 전달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 나주시, 수재민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

다시초교에 상담소...우울증 등 검사  
종로·김해 등 자매도시 구호품 담지

나주시가 수해 이재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주시보건소는 18일부터 21일까지 다시초등학교 임시 이재민 시설에서 찾아가는 재난심리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1대 1 개별 상담 및 우울증 척도 검사 등을 통해 수해 충격에 따른 이재민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회복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우울·불안감이 심화되는 고위험군의 경우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회복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시초교 대강당 이재민 시설에는 지난 폭우 피해로 발생한 최초 48명의 이재민 중 18일 현재 21명이 임시 거주하고 있다.

나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극심한 재난으로 주민들이 우울·불안을 겪고 있다”며 “수해 복구와 병행해 재난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재민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경남 김해시 등 자매도시들의 구호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종로구는 최근 이재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이불 300세트(1200만원 상당)를 보내왔다.

김해시도 라면 2400개, 생수(김해 수돗물 ‘잔 새미’) 6000병, 크린랩 200세트 등 총 660만원 상당의 간식·생활용품을 보내 이재민들을 위로



나주시가 이재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시초교 이재민 시설에서 ‘찾아가는 재난심리지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매도시인 서울 종로구가 보내온 이불.

〈나주시 제공〉

하고 응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수해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온정 가득한 손길을 전해준 종로구와 김해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돈독한 우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상호 교류와 발전을 적극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매매 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물건

**공장**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 : 12029㎡(3638.77평) 건물 : 1929.992㎡(583.823평)  
감정가 : 2,054,798,910원 **최저가 : 920,550,000원(45%) 유찰 3회**

**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정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 2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